

실질적이다

실용적이다

현실적이다

조선 후기 새로운 학문과 예술의 특징이다.

1. **실학**: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백성들이 잘살고 튼튼한 나라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문이다.

2. 실학이 등장하게 된 이유

▶ 당시의 학문: **유교**

- 우주와 인간을 탐구하며, **법**과 **예**를 탐구하는 학문이었다.
- 실생활과는 거리가 멀어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었다.

▶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 일어난 반성

- 그들이 연구하던 학문이 더 이상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서양의 과학 기술이 소개되면서 **실용적인 학문 연구의 필요성**을 깨달은 학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 당시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나타났고 그와 같은 생각이 **실학**으로 이어졌다.

실학자들의 주장: 잘 사는 나라, 백성생활 안정

▶ 중농학파 : 농사를 중요하게 생각

1. 과학적인 농사기술을 널리 보급해야 한다.

-모내기법(이앙법): 벼의 씨앗을 곧바로 논에 뿌려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벼 씨앗을 따로 심어 기른 모를 논에 심는 농사법이다. 같은 크기의 논에서 많은 양의 수확을 할 수 있다.



2.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이 토지 제도를 개혁하여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지 제도가 바르지 않으면 백성의 생활이 안정되지 않고 나라의 제도 또한 공정함을 잃게 되어 풍속까지 혼란스러워진다. 이는 토지가 나라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근본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군주가 바른 정치를 하고자 해도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 그런데 부자들은 한없이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송곳 꽃을 땅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부유한 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졌다.

- 유형원의 <반계수목> 중에서 -

-당시 사회 모습 : 토지 제도가 잘못되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심하다.

-백성들의 어려움 : 토지를 소유하지 못해 가난하게 살고 있다.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 제도를 고쳐야 한다.

3. 다산 정약용(1762-1836)

-정조 때, 거중기와 녹로를 사용하여 수원화성을 건설했다.

-정조가 죽은 후, 18년간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 많은 책을 만들어 실학을 집대성하였다.

-牧(다스릴 목) 民(백성 민) 心(마음 심) 書(책 서):

백성을 다스리는 마음가짐에 대한 책

-경세유표: 세상을 다스리는 근본적인 제도, 원리 제시

토지의 공동 소유, 경작과 수확물의 공동 분배 주장



▶ 중상학파 : 상공업을 중요하게 생각

1. 당시의 상황

상업을 천하게 여겨 상공업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



2. 실학자들의 주장

-상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청나라의 새로운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공업을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을 비판하고, 상공업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득신의 그림 '대장간'→

- 상업이 발달하면서 수공업 생산이 늘어났으며 세금만 내면 자유롭게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 대표적인 실학자

-박지원 : <허생전>을 통해 양반도 상업에 종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상공업의 발달이 나라를 부강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수레를 사용하여 전국적으로 상업유통을 활발하게 하자고 주장, <열하일기> 여행일기를 통해 청나라 문물을 소개.

-박제가 : <북학의>를 통해 양반, 농민, 수공업자, 상인 모두가 잘살기 위해서는 소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

-홍대용 : 신분에 관계없이 양반과 평민의 자녀를 다 같이 공부시켜 그 가운데 우수한 사람을 뽑아 벼슬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



김홍도의 그림 '담배떨기': 담배, 목화, 감자, 고구마 등 상품작물이 재배되면서 농가 소득이 늘어났다.

▶ 홍대용의 혼천의

- 홍대용은 지동설을 주장했다.
-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과학적 근거가 되었다.
- 태양,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관찰하는 도구이다.



홍대용이 혼천의로 천문을 관측하던 누각, '농수각'

국학: 우리 것에 대한 연구(역사,지리,국어)

▶ 역사 : 유득공의 <발해고>

- <발해고>는 발해가 고구려 후손들이 세운 나라임을 밝혔다.
- 통일신라시대를 '남북국시대'라고 밝혔다.

▶ 국어 : 유희의 <언문지>

-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하였다.
- 한자음 위주에서 벗어나 우리말을 중심으로 한글을 연구한 책

▶ 자연 : 정약전의 <자산어보>

-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흑산도 주변의 물고기와 바다 생물들을 관찰하여 해양생물도감을 만들었다.
- <자산어보>는 뛰어난 해양 과학 서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 지리 :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 목판으로 제작한 우리나라 전국 지도
- 실제 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산과 강, 도로 등을 자세하게 나타내었다.
- 오늘날의 지도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만큼 정확하였다.
- 전국의 산줄기와 물길을 자세히 나타내었고 기호를 사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표현하였다.

